

여대생 취업 아직도 '좁은문'

대기업 상반기채용 10%미만

삼성 현대 등 대부분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졸 여성의 채용을 매우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일 취업정보전문회사인 (주)인턴이 내놓은 '올 상반기 대졸여성 채용현황'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올 상반기에 채용한 1천94명의 대졸사원중 여대생이 64명으로 전체의 5.9%에 불과했다. 롯데그룹은 3백50명중 10명 안팎으로 2.8%, 한화그룹은 3백명중 15명으로 5.0%를 기록했다. 학력과 성차별 철폐를 선언한 삼성그룹의 경우도 전체 2천여명중 2백명 안팎으로 10%를 밑돌았다. 2천4백여명을 채용한 대우그룹은 6.2%, 쌍용그룹은 8%를 기록했다.

조사대상 그룹중 여대생 채용비율이 10%를 넘은 곳은 1백87명중

그룹	95대졸 채용인원	대졸여성 채용인원	채용 비율
건영	1백50명	4명	2.6%
기아	2백50명	10명 내외	4.0%
대림	1백50명	3명	2.0%
대성	1백명	2명	2.0%
대우	2천4백명	1백50명내외	6.2%
동부	2백80명	10명	3.5%
롯데	3백50명	10명 내외	2.8%
삼성	2천여명	2백명 내외	10.0%
선경	2백명	15명	7.5%
쌍용	4백36명	35명 내외	8.0%
이랜드	1백87명	38명	20.3%
한화	3백명	15명 내외	5.0%
해태	2백명	30명	15.0%
현대	1천94명	64명	5.9%

자료:(주)인턴

38명(20.3%)을 뽑은 이랜드그룹과, 2백명중 30명(15%)을 뽑은 해태그룹 둘뿐이었다. 박태웅 기자